

「인터배터리 2026」 개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미래 에너지를 서울에서 충전하다

- 총 14개국 667개社 참여, 배터리 기술 공유 및 글로벌 협력의 장 마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EU의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통상·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전략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전고체 및 소듐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기술전략과 함께, 열폭주 대응, 구조설계, 소재 혁신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방향도 제시된다. 아울러 방산,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배터리 활용 가능성도 조망된다. 배터리가 단순 부품을 넘어 신성장 산업의 동력임을 증명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산업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우리 배터리 3사의 구매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를 통해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벤처 캐피털(VC) 초청 IR 피칭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배터리 잡페어를 통해 1:1 직무 초밀착 멘토링 등 취업 올인원 패키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참가한 문신학 차관은 배터리는 ‘첨단산업의 심장’이라고 강조하며, “전기차 시장 캐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과 신수요 확대 및 공급망 재편 등 기회에 동시에 직면한 상황에서, K-배터리가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SS 시장 확대 및 배터리 리스제 도입 등 전방수요를 활성화하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분야의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핵심광물-소재-마더팩토리로 이어지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의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차관은 “민관이 협력해 R&D, 주요국의 통상정책 등에도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강규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박문일 (044-203-4263)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5.3.11(수) ~ 13(금) 10:00~18:00 / 코엑스 전관
- 주최/주관 : 산업부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코트라
- 규모 : (참가업체)667개사 2,382부스 / (참관객)8만명(예상)
- 동시개최 : (미국)2026 미국 배터리 포럼*, (독일)2026 한-독 배터리 포럼, (호주)한-호 협력 기회 세미나, (통상)EU배터리규정 대응 세미나, (지식재산)이차전지 지식재산 컨퍼런스 등
- 부대행사 : 더배터리컨퍼런스 2026, 인터배터리 어워즈, 기업 IR 피칭 행사,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 잡페어 등

□ ' 26년 전시회 특징

- ❶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 규모, 글로벌 배터리 TOP 전시회 위상 입증
 - 국내외 배터리 및 유관 산업 기업 667개사, 2,382부스 참가
- ❷ 해외 참가기업 규모 확대, 글로벌 배터리 비즈니스 플랫폼 위상 강화
 -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기업 참가 확대
 - * ('25) 172개 해외 참가업체 → ('26) 182개 해외 참가업체(전년 대비 +4%)
- ❸ 글로벌 배터리 산업 분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부대행사 고도화
 - (컨퍼런스) 글로벌 산업을 리딩하는 연사 및 주요 이슈 콘텐츠 구성
 - (세미나) 국내 기업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 세미나 확대
- ❹ 인터배터리 최초, 구매·투자 연계 기반 참가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급망)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신시장)글로벌 VC 협력 투자 피칭 대회

□ 주요 행사 일정표

(■: 전시 ■: 세미나 ■: 상담회)

시간 일자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11 (수)	도어 스태핑 (남2분)	개막식 (A,C홀)	인터배터리 2026(전관)								
			어워즈 특별관(동문 로비/VIP 라운지 정면)								
				더배터리컨퍼런스 2026 (401,402,307,308호)							
			배터리 잡페어(317~318호, 327호)								
			InterBattery Supply+(상생협력 구매상담회)(전관)								
			인터배터리 피칭데이(전시장 2층 플라츠홀/플라츠홀 로비 스테이지)								
			도슨트 투어(VIP, 해외바이어)								
							한-호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ESS 분야 파트너십 포럼 (301호)				
						이차전지 지식재산 컨퍼런스 (300호)					
		KOTRA 수출상담회(전관)									
3/12 (목)			인터배터리 2026(전관)								
			어워즈 특별관(동문 로비/VIP 라운지 정면)								
			더배터리컨퍼런스 2026(401,402,307,308호)								
			배터리 잡페어(317~318호, 327호)								
			InterBattery Supply+(상생협력 구매상담회)(전관)								
			인터배터리 피칭데이(전시장 2층 플라츠홀/플라츠홀 로비 스테이지)								
			도슨트 투어(VIP, 해외바이어)								
			2026 한-독 배터리 포럼 (300호)								
		KOTRA 수출상담회(전관)									
3/13 (금)			인터배터리 2026(전관)								
			어워즈 특별관(동문 로비/VIP 라운지 정면)								
			배터리 잡페어(317~318호, 327호)								
			InterBattery Supply+(상생협력 구매상담회)(전관)								
						InterBattery Scale-Up Pitch (플라츠홀 로비 스테이지)					
			2026 미국 배터리 포럼 (402호)								
			EU 배터리규정 시행 및 산업 정책 변화 대응 세미나 (300호)								
						리튬배터리 안전 및 UPS 국산화 전략 포럼 (307호)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401호)						
		인터배터리 피칭데이(플라츠홀-국내, 그랜드볼룸-해외)									